

휴먼웨어의 入出力量

컴퓨터의 내부처리 속도는 나노세컨드(Nano Second)라는 10억분의 1초를 단위로 하고 있다. 우리인간이 70세 까지 산다고하면 22억초를 사는셈인데, 1부터 22억까지의 숫자를 컴퓨터의 기억용량으로 환산하면 신문 8면의 기사 55년분을 기록해 놓을 수 있는 분량이며, 5백페이지짜리 소설책은 5천2백38권을 보관해 놓을 수 있는 분량이다. 컴퓨터내부의 연산장치에서 22억을 세어본다면 3분가량 이면 충분히 카운트되는 숫자이기도 하다.

창조주께서 지구를 바라보는 차원이나 휴먼웨어(Humanware)가 존재하는 인간생활의 시간을 컴퓨터내부에 축소시켜보는 차원은 시간개념으로 볼 때 유사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22억초를 살아가는 휴먼웨어의 입장에서 30세되는 해까지는 9억 5천초정도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입력된 내용을 計量化해보면 다음과 같다. 하루식대를 3천 원(1식1천원)으로하고 年利12%로 계산하면 2억6천3백만 원이 되고, 주거비는 5백만원짜리 임대주택을 기준으로하면 그 이자만을 계산해도 30세되는 해까지 1억4천4백만 원이 되며, 피복비는 월1만원으로 계산하면 2천9백만원이 되어 휴먼웨어가 30년간 존재하려면 무려 4억3천6백만원이 든다.

여기에 컴퓨터분야에 종사할 휴먼웨어로 키우려면 교

조이남
금융결제관리원 금융전신추진부장



육비를 투자하여야 하는데 국민학교시절에는 월1만원, 중학교에서는 월3만7천원, 고등학교에서 6만3천원으로하고 대학교육까지를 시켜 고급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등록금을 1년에 1백20만원 정도로 하고 기타경비를 월5만원 정도로하면 교육비 총액은 30세되는 해까지 5천만원 가량 소요된다. 이렇게 단순계산한 내용을 합산해보면 4억 8천만원이 드는 셈이다.

휴면웨어가 31세되는 해부터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하여 60세까지 계속한다고 하면 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경우 월1백33만원씩 출력하여야 하며 12%의 단순이자로 하더라도 1백81만원으로 증가한다. 복리로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은 부담을 하여야 겨우 입력된 내용을 제대로 클리어하는 셈이 된다. 입출력 밸런스를 맞추고 부채없이 자신을 결산하는 휴면웨어가 몇이나 될까.